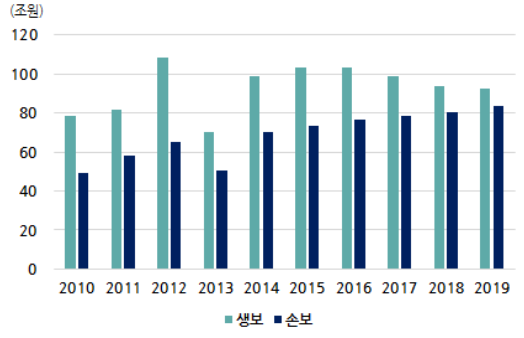
Ⅰ 보험산업 현황

○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퇴직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5년부터 감소하여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음

- 생보 수입보험료는 2015년 103.5조 원에서 2019년 92.6조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손보 원수보험료는 73.6조 원에서 83.8조 원으로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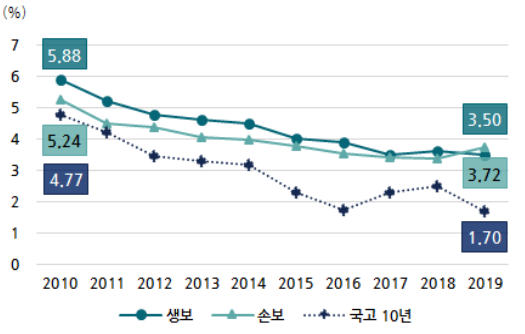
○ 또한, 보험산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국고채 금리 하락에 따라 10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여 생보사는 5.88%에서 3.5%로 하락하였고, 손보사는 5.24%에서 3.72%로 하락함

〈그림 Ⅰ-1〉 수입보험료(원수보험료) 추이



주: 2013년은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해 4~12월 실적이며,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이 제외되었음
자료: 금융통계월보

〈그림 Ⅰ-2〉 운용자산이익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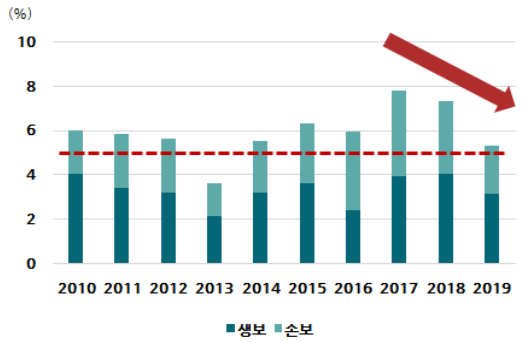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금융통계월보, 금융투자협회

○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17년 이후 하락 추세이며,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(ROE)은 10년 전에 비해 1/3 수준으로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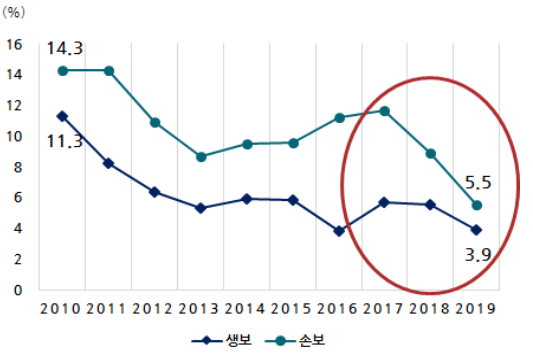
- 당기순이익은 회계연도 기준이 변경된 2013년(4~12월)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동안 최저 수준임
- 2010~2019년 동안 생보사 ROE는 11.3%에서 3.9%로 하락하였고, 손보사 ROE는 14.3%에서 5.5%로 하락함

〈그림 Ⅰ-3〉 당기순이익 추이



주: 2013년은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해 4~12월 실적임
자료: 금융통계월보

〈그림 Ⅰ-4〉 ROE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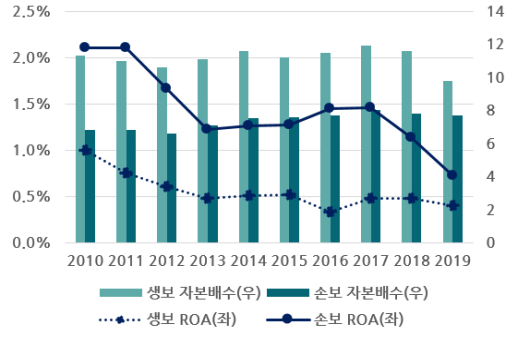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금융통계월보, 금융투자협회

○ 한편, 자기자본이익률(ROE)은 총자산순이익률(ROA)과 자본 배수의 곱으로 분해[1]하여 ROE 변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, 분해 결과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 모두 ROE가 하락한 원인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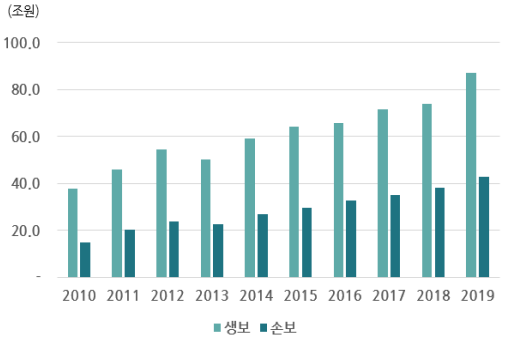
- 생보사의 ROA는 일정하나 자본배수가 감소하였으므로 자본 증가로 인해 ROE가 감소함
- 손보사의 ROA는 감소하나 자본배수가 일정하므로 이익 감소(손해율 증가 등)에 의한 것임

〈그림 Ⅰ-5〉 ROA, 자본배수 추이



자료: 금융통계월보

〈그림 Ⅰ-6〉 자본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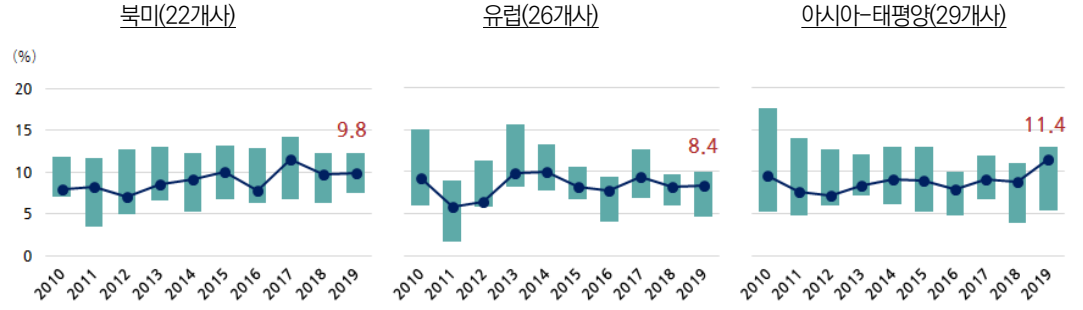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통계월보

○ 해외 생명보험회사도 과거에 비해 최근 ROE가 하락하였으나 국내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임

- 2019년 기준 북미 9.8%, 유럽 8.4%, 아시아-태평양 11.4%임

1) ROE = 당기순이익 / 자본 = (당기순이익 / 자산) × (자산 / 자본) = ROA × 자본배수

〈그림 Ⅰ-7〉 해외 생명보험회사 ROE 추이



자료: Swiss Re(2020), "Sigma No 4/2020"

○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보험산업의 현재 이익수준 적정성과 건강성을 평가하고 보험산업의 수익성 확대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봄

- 이익수준의 적정성은 자본비용 산출 방법을 활용하며, 건강성 평가는 내재가치 분석을 이용하고 수익성 확대를 위한 대응방안은 내재가치 요소별로 살펴봄